

식탁 위 감자도 ‘금값’…1년 새 46% ↑

aT, 감자 20kg 중도매가 6만원선…재배면적 감소·집주호우 등 영향
가을 감자 생산량 54% ↓…5월 노지 봄감자 출하까지 가격 상승 전망

감자 도매가격이 1년만에 40% 이상 수직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들어 먹거리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감자 주산지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생산량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감자는 오는 5월 노지 봄감자가 출하되는 시기까지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가격정보(KAMIS)를 분석한 결과 감자(수미 상품·20kg)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지난 9일 기준 6만 3120원으로 전년 동기(4만 3141원) 대비 46.31% 상승했다. 평년(4만 3453원)에 비해서도 45.26%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감자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감자 중도매가는 지난 8월 초 4만원대 초반에 거래됐지만, 9월 중순께 4만 5000원 선을 돌파했다. 이어 10월 말~11월 가을감자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도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하고, 이 시기후로 인한 상품성 저하 등으로 출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12월 중순에는 5만원선을 넘어섰다.

감자 중도매가는 새해 들어 6만원선에 올라선 뒤에도 지속 상승세를 보이며, 농수산물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거세지는 물가 상승 품목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감자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인으로는 공급 감소가 꼽힌다. 농가에서 지난해 가격이 대폭 상승한 당근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서 주산지인 전남과 제주 등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대폭 줄었고, 호남·제주 등에서는 파종 직후 집중호우 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간한 ‘농업 관측정보 감자 2025년 1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감자 재배면적은 948ha로 전년(2171ha)과

평년(1888ha)에 비교해 56.3%, 49.8%씩 급감했다.

재배 기술의 발달 등으로 단수(면적 당 생산량)는 전년보다 7.9% 늘었지만, 총 생산량은 1만 3000 t 수준으로 전년 대비 53.9% 감소할 것으로 KREI는 예상했다.

가을감자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난달 출하량도 1년 전보다 9.0% 감소했고, 감자 가격이 잇따라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자 가격은 오는 5월 노지 봄감자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시설 봄감자 재배면적은 2401ha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0%, 1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KREI 관계자는 “연말·연초에 감자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는 시기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노지 봄감자가 출하되기 전에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에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지난해 생산량 감소폭이 컸던 만큼 올해 공급 물량이 얼마나 보강되는지, 작황은 어떤지 등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겨울엔 무가 있어 행복하다

맛 좋고 영양 풍부…식재료 약용으로 쓰임도 무한 가치

참고 배고픈 시절 우리에게 배추와 무가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됐다. 김장김치와 무 반찬이 밥상을 책임지다시피 했으며 무로 만든 동치미(싱건지)와 무채는 고구마 등 겨울 간식과 단식을 이뤄 입을 즐겁게 했다. 뒤뜰이나 텃밭을 파고 저장했던 무를 가져오는 것이 좀 번거롭기는 했지만, 이것으로 만들어질 맛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수고는 감내할만했다.

무(Daikon, White Radish)는 먹을 수 있는 배춧과의 뿌리채소로 세계 곳곳에서 재배된다. 유럽에서는 로마 제국 시대부터 재배됐으며 크기와 색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고, 각각의 품종에 따라 어느 계절에나 재배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아메리카나 유럽 등지에서 재배되는 무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크고 흰색 빛깔을 지닌 무를 재배하는데,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굵기와 길이에 따라 조선무(朝鮮) 또는 왜무(倭)로 구별한다. 삼국시대에 재배되기 시작했으며, 고려 시대에는 중요한 채소로 여겨졌다. 가을 무 재배 면적만 평균 6000ha(헥타르·1ha는 1만㎡)를 차지할 정도다.

무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우리가 즐겨 먹는 조선무부터 알타리무(총각무), 열무, 단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왜무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과일처럼 달고 수박처럼 속이 빨간 무도 있는데 ‘과일무’라고 한다. 중국의 빨간 무와 우리나라 토종 무를 교배시킨 것이다.

가을무도 고유의 시원함과 단맛으로 이름값을 하지만 무는 역시 겨울 무다. ‘겨울에 무, 여름에 생강을 먹으면 의사를 볼 필요가 없다’나 ‘겨울 무 먹고 트림을 하지 않으면 인삼 먹은 것보다 효과가 있다’라는 속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무 중에서도 겨울 무는 최고로 손꼽힌다. 그렇다고 무가 계절에 따라 영양분이 달라지는 것

은 아니다. 다만 밤이 긴 겨울에 특히 더 많은 영양분을 저장해 맛이 좋다는 것이다.

무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 속보다 겉질 부분에 약 2배 정도 많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효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소화에 도움을 준다. 또 허약해진 비위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생무는 시원하면서도 매운맛이 특징인데 무의 매운맛에는 항암 효과가 있으며 그냥 먹는 것보다 갈아 마시면 매운맛이 더 강해진다. 특히 무에는 섬유질도 풍부해 장내 노폐물을 제거하므로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준다. 무는 오이만큼이나 수분이 풍부해 이뇨 작용을 통한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단, 오이에는 무의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가 들어 있으므로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영양분을 가득 충전한 겨울 무는 맛이 달아 어떤 요리를 해도 맛이 있다. 특히 단맛이 강한 푸른색 부분은 생채나 나물, 전을 부쳐 먹는 것이 맛있고, 시원한 맛의 흰색 부분은 국이나 탕, 조림 등의 요리에 사용하면 개운한 맛을 낼 수 있다.

한방에서는 무를 폐와 인후를 건강하게 하는 식품으로 여러 인후통, 진해거담의 치료 약으로도 사용한다. 무즙은 담을 제거하고 기침을 멎게 하며 각혈을 다스리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목감기, 기침, 기관지염이 있는 사람에게 좋다. 무를 깎듯 깎듯 썰어 유리병에 담아 꿀과 함께 2~3일 정도 재어두었다가 무즙을 내어 먹어도 효과가 크다.

무채며 무조림, 무밥까지 먹을 것 천지인 지금에도 무의 쓰임은 무한 가치다. 친근한 데다 쓸모까지 있으니 채소 중에 으뜸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bigkim@kwangju.co.kr



‘중대재해 ZERO’ 목표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들이 지난 8일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3층 회의실에서 ‘안전관리 강화 T/F’ 착수 회의를 열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공사는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TF를 구성하고, 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 발굴 및 새로운 안전체계 구축에 힘 쓸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농관원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미신고 댄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개정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은 “오는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재배작물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 정보인 만큼, 등록정보가 실제 재배품목과 맞

지 않는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동계작물에 대한 변경신고 기간을 알리고, 농업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 등을 재배하는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변경됐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농관원 전화,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도 시행한다. 농관원은 1월 12일부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일부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정보를 유효기간(3년) 내 갱신하지 않아 말소돼 다시 등록 신청하는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경과만 날로부터 1년 이내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조건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그동안 숙주나물 재배 농가의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했지만, 기준이 신설돼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영농사실 여부를 증명·확인하는 ‘영농사실확인서’가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 2종으로 혼선을 빚었던 만큼, 이를 일원화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저탄소 농산물 인증, 이제 온라인으로 배운다

농업기술진흥원, 교육과정 개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참여 확대와 농업인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 온라인 농업인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농업 분야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 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집합교육 중심 방식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농업인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취득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증제기 초부터 인증 취득, 사업신청에 필요한 실무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와 농업, 인증제 개요와 인증 현황, 지원사업 신청 요건과 추진 절차, 저탄소 농업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원리, 기술별 증빙 방법 등이 있다.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을 90% 이상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수료자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취득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 1점을 받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unesco
World Heritage site
Getbol, Korean Tidal Flats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 산 명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록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한계 (km)	유산지역 (km)	원생구역 (km)
총면적(km)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창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km)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km)의 약86%, 국가연안습지(2,482.00km)의 약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써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로부터 인정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팔갯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조수로

팔갯벌 위의 수채화

새들의 휴식처인 사위와 알만사식지

갯벌 위에 춤추는 무희, 사위

알만사식지 위에서 휴식하는 종도요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퇴적층

모래-자갈 선형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움

갯벌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먹이활동, 서식굴, 쪼갬, 쪼갬 싸움, 얹날개, 얹날개 싸움, 오염된 갯벌 구출까지 7가지 콘텐츠로 갯벌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철새이동

철새의 먹이활동

서식굴

오염된 갯벌에서 갯벌생물을 구하자

쪼갬어 영역싸움

갯벌의 청소부 얹날개

얹날개생물의 역할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수업 현장!

VR로 떠나는 생생한 갯벌 탐험

직접 만지고 만드는 생태 교육 체험

내 손으로 만드는 미니 갯벌 생태계

갯벌 생태계를 직접 구경해보는 활동

수평선만 보이는 북대서양 연안의 외딴해 갯벌

산과 섬에 둘러싸인 절경을 보이는 한국의 갯벌

www.getbolworldheritage.org